

한 장 넘기고, 한 번 숨 쉬고, 한 번 읽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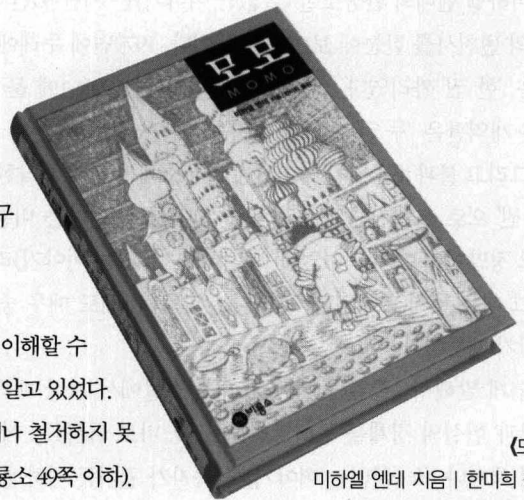
책을 볼 때나 책 읽어주는 것을 들을 때 내용을 이해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. 그보다는 책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책이 나를 이해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. 더구나 우리가 속도로 읽는 실용적인 독서보다도 의미와 치유를 내포한 독서를 선호한다면 말이다. 하루, 이틀, 사흘... 때로는 몇 달, 몇 년 후에 그것이 이해돼도 좋다는 마음으로.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비로소 책은 어떤 불빛으로 다가온다. 그러면 우리는 그 빛 속에 서게 되고 그 빛의 밝음을 아는 자는 빛의 그림자도 사랑할 수 있다.

글_변학수

말 없는 노인 베포가 나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라

그림자를 사랑하는 자는 곧 그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. 이런 방식으로 그림자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의 외진 곳에서 도출해 낼 수 있다. 《모모》에 쓰여 있는 구절들을 읽어보면 그런 독서의 과정이 그림처럼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.

하지만 모모는 달랐다. 모모는 베포가 대답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고, 또 그의 말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. 모모는 베포가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. 베포는, 모든 불행은 의도적인, 혹은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거짓말, 그러니까 단지 급하게 서두르거나 철저히 못 해서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거짓말에서 생겨난다고 믿고 있었다(미하엘 엔데 지음, 한미희 옮김, 비룡소 49쪽 이하).



(모모)
미하엘 엔데 지음 | 한미희 옮김
비룡소 | 368쪽 | 값 9,500원

책을 읽는 우리는 삶에 아둔한 사람인 듯 보이는, 말 없는 노인 베포가 나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. 그가 말하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그의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. 그러면 베포의 삶은 나의 빛이 되고 구원이 된다. 베포는 “날마다 해가 뜨려면 아직 먼 이른 새벽에 뼈격대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의 커다란 건물로 출근”하는 보잘것없는 노인이다. 도로청소부 베포는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누더기 집도 자기 스스로 지은 집이었다. 그는 유난히 키가 작았고 걷는 자세도 약간 구부정했다. 또한 그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.

